

공동체 소식



부활 제5주일

아버지, 저희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아버지께는 살아 있는 값진 돌로 선택되었으니, 저희도 성자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주님 영광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한봉경 베드로, 한순례 루시아 가정
- 한중문 요셉, 한정숙 마리아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Fr. Tony 서품 60주년 기념미사

- 일시 : 6/1(일) 오후 1시
- 장소 : 103가 Holy Spirit 본당
-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시작부터 함께 해 주신 토니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복미주 사제 컨퍼런스

- 일시 : 5/19(월) ~ 5/23(금) 4박5일
- 장소 : 뉴욕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센터

구역 회의

- 일시 : 5/25(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오늘 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5월 로렌스 미사는 공동체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저희 공동체에 병원 통역 서비스를 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조지연 마리아, ☎ 913-948-2925)
- 지난 주일, 야외미사(Mother's Day)를 맞아 수고해 주신 행사분과와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음식 도네이션 해 주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34	513	170/182	134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예나 (요 안 나)	안광민 (야 고 보)
차주	차서은 (세라피나)	차호섭 (요 셉)
	고평원 (프란치스코)	고영방 (스테파노)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 네 스)	문석찬 (요 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한순례
차주	손정화, 양정희, 유경애, 한춘희, 황의정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 네 스), 박희영 (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5/11	84명	275불	/
야외미사			

부활 제5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5월 18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굳건히 따를 용기와 지혜를 청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결심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참된 말씀이며,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청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닮게 해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6,1-7 <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



◎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 대로 주 님 어여배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 리 소 서

○ 의인들이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여라. 올바른이러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비파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심현금 맞추어 읊조리어라. ◎

○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도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이들 당신 자비를 바라는 이들 위에 있나니, 죽음께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

제 2 독 서 : 1베드 2,4-9 < 여러분은 선택된 거리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 요한 14,1-12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쉐 마

“하느님 나라의 지도”



본당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강론할 때, 강론대가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왼쪽을 보고 강론을 했습니다. 한 교우가 오른쪽도 보면서 강론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성당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제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용인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주인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점심만 먹으러 갔는데 동동주를 공짜로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를 치료하러 치과에 가도, 머리를 손질하러 미장원에 가도, 약을 사러 약국에 가도 신자들이 하는 곳엘 가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신학생 면담을 하러 신학교에 갔습니다. 3학년인 신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부님, 사제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사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은 거의 체육학과 수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철학, 성경, 심리학, 교리 교수법을 충실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좀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충실하고, 시간을 더 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지식이 뛰어나도 금세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를 하고, 가능하면 일기를 좀 쓰라고 했습니다. 건강과 지식은 눈에 보이는데 기도는 분심도 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돈 버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10년 동안 벌 수 있어도 돈 번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살 수 없는데도 우리는 건강보다 돈을 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합니다.

소중한 일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을 돌보는 일, 건강을 돌보는 일, 이웃과 신뢰를 쌓는 일, 명상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일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면 여유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주도적인 삶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배반에도, 유대인들의 조롱에도, 하느님의 무심함까지도 예수님은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도적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음식을 나누는 일은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말씀은 널리 퍼졌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낮선 곳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길인지, 어느 곳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는지, 어느 곳에서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머무를 곳에 미리 가 볼 것이다. 그곳은 머무를 곳이 참으로 많다.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들어갈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 나라의 지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기적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이 표시된 지도입니다. 우리의 지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번뿐인 우리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2-2장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되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뿌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7-8).

< 주석 >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더위가 닥쳐오고 가뭄이 심한 해에도 늘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또는 자신을 과신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시편 1,3).

< 설명 >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산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살 수도 있고, 나 자신이나 사람을 신뢰하며 살 수도 있다. 하느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늘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은 시련이 닥치고 역경의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하느님을 저버리고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잠시 만족할 수는 있어도 시련이 닥치고 역경이 거듭될 때에는 이내 절망하고 만다.

< 교회 가르침 >

▶ 성경의 증언은 한결같다. 하느님의 섭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미소한 것에서부터 세계와 역사의 큰 사건들까지 모두 보살핀다(가톨릭교회교리서, 303항).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필요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결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가톨릭교회교리서, 305항).

< 어록 >

▶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나의 성찬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세속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조금씩 애착을 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언제나 하늘나라를 생각합시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주님의 마음은 선과 친절과 사랑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자주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